

자이툰부대 장병에게 보내는 격려 메시지

친애하는 자이툰사단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건강하지요?

여러분을 만났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밝고
넘틈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정승조 장군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깊
은 위로와 치하를 보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라크의 치안유지와 건설지
원, 의료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 국내외에서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
도 대한민국을 '친구의 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을 신뢰한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장하고 믿음직합니다.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여러분을 대한민국 국군의 자랑스러운 용사들로 기억할 것
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임무를 훌륭하게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